

10/25/20

설교 제목: 야곱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9 장 1- 30 장 24 절

- (창 29: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 (창 29: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 (창 29: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 (창 29: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 (창 29: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 (창 29: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 (창 29: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 (창 29: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 (창 29: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 (창 29: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 (창 29: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 (창 29: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 (창 29: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 (창 29: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 (창 29: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 (창 29: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 (창 29: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 (창 29: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 (창 29: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 야곱과 레아의 결혼

- (창 29: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 (창 29: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 (창 29: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 (창 29: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 (창 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 (창 29: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 (창 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 (창 29: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 (창 29: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 야곱의 아이들

-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 (창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 다 하였더라
- (창 29: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 (창 29: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 (창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 이 멈추었더라
-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 (창 30: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 (창 30: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 (창 30: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창 30: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 (창 30: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 (창 30: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 (창 30: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 (창 30: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 (창 30: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 (창 30: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 (창 30: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 (창 30: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 (창 30: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 (창 30: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 (창 30: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 (창 30: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 (창 30: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 (창 30: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 (창 30: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 (창 30: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 (창 30: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 (창 30: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 (창 30: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결혼을 하여 네 명의 아내를 두고 그들로부터 열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 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때마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그곳에 와있던 목자들에게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 소유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양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을 나누고 있는 동안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고 야곱은 우물 어귀에 있던 돌을 옮겨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 곧 라반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라반은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합니다.

(창 29: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창 29: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창 29: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창 29: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했고 전후사정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머물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서 일을 도우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의 모습을 지켜본 라반은 야곱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품삷을 주겠다고 얼마를 주었으면 좋을지 말하라고 합니다.

(창 29: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삷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창 29: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창 29: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창 29: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7 년동안 외삼촌을 섬길테니 품삯대신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성경은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에 비해 곱고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칠 년을 보냈고 약속한 기한인 칠년이 끝나자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창 29: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은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창 29: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창 29: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창 29: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깜박 속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신혼 밤을 보냈습니다.

때가 저녁이고 또 신부가 베일을 쓰고 있는지라 야곱이 분간할 수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외삼촌 라반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기에 거기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신부가 바뀐 사실을 알고 외삼촌에게 항의했습니다.

(창 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약속대로 외삼촌을 위해 칠 년을 일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다니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라반은 그렇싸하게 둘러 댁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혼인시키지 않는 그 지방 풍습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그 지방 풍습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야곱과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요.

어떤 변명도 라반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창 29: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인지라 야곱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야곱을 칠년 동안 품삯없이 더 부려 먹으려 한 것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바로 그 꼴이 난 것입니다.

웬지 라반에게서 야곱의 모습이 겹쳐 보여집니다.

라반의 계산대로 야곱은 울며겨자 먹기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창 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창 29: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창 29: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레아와 일주일을 보내고 라헬과 결혼을 하였고 또 다시 칠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 외삼촌을 섬기는 그 칠 년은 처음 칠 년과 같지 않게 힘들고 더디갔을 것입니다.

그 칠년을 보내며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을 무척 원망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날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파 보아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또 그로 인해 형 에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야곱을 연단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등 4 명의 아들을 내리 낳았습니다.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창 29: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창 29: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창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 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고 말하며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하고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째 아들을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하고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 지었습니다.

네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하고 이름을 유다 '찬송함'이라 지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 속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남편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는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릴 것이라고 억지까지 부립니다.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 30: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에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빼있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태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라헬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창 30: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창 30: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창 30: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창 30: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창 30: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마침내 라헬은 빌하를 통해 두 아들을 얻습니다.

빌하가 첫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하고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고 하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자매가 남편 야곱을 둘러싸고 벌이는 행각이 점입가경입니다.

라헬이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자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자신이 낳은 아들이 네 명이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아내들의 지각없는 행동에 부화뇌동하는 야곱은 또 뭘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도 두 아들을 낳아 레아에게 안겨 줍니다.

(창 30: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창 30: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창 30: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창 30: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실바가 낳은 첫 아들을 "복 되도다"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고 하며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라헬은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 합환채를 얻어 레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그 합환채를 레아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합환채를 지니면 임신이 된다는 속설을 믿은 라헬은 어떻게 해서라도 합환채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라헬은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하룻밤 내어주는 조건으로 합환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창 30: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창 30: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창 30: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라헬에게 속터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 주셔서 레아가 아들을 둘이나 더 낳은 것입니다.

(창 30: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창 30: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창 30: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창 30: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창 30: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다섯 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값을 주셨다"하고 그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여섯 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하고 그 이름을 스블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소생 여섯 아들과 자신의 종 실바 소생 두 아들까지 도합 여덟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딸 디나도 낳습니다.

라헬은 온갖 노력에도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런 라헬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그의 태를 여섯서 라헬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십니다.

합환채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아들을 낳 수 있는 것입니다.

(창 30: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창 30: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창 30: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름을 요셉 '더함'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씻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후에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주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소설을 보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점과 흠과 죄악으로 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점과 흠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속임수, 레아와 라헬의 경쟁과 시기 질투 등등 점과 흠과 죄악으로 얼룩져 태어난 야곱의 열 두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세우십니다.

특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결혼한 레아에게서 난 아들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들의 탄생과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반이나 야곱처럼 계산적이고 얽박한 인간들입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경쟁을 일삼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점과 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된 인생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롬 11: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세세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